"농사짓는게 아니라 식품원료 생산합니다"

나주 3개 작목반, 가공업체와 납품 계약 '고소득'

공산면 뿌리작목반-해태제과

동강면 복분자작목반-보해양조

새싹작목반-경기도 대농바이오

감자와 복분자, 새싹채소 종자 등 틈새 작목을 재배하는 나주지역 농가들이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32 농가가 35ha에서 1천50t의 가공용 감자를 생산하는 공산면 뿌리작목반(대표 노경두)은 충남 천안 해태제과식품(주)과 440t, 강원 평창 신농상사(주)와 610t을 출하키로 계약을 체결해 4억7천만여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동강 복분자작목반(대표 김용)은 63 농가가 93t의 복분자를 생산해 장성군 (주)보해B&F에 50t, 동강농협에 10t을 출하하고 33t은 자체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시중에 판매할 계획으로 올해 6억3천만여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85 농가가 65ha에서 60t의 새싹채소 종자 수확을 마친 영산나루 새싹작목반(대표 노병북)도 경기도 광주에 있는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에 전량 계약 출하해 2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

이들 3개 작목반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틈새 소득작목을 재배, 보리나 봄 감자, 노지고추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창출해 수입개방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시도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정과 보리 약정수매 감축에 대비해 지난 2004년부터 14억여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이들 품목을 새로운 소득 대체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왔다.

홍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틈새 소득작목을 꾸준히 발굴하고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약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민선 4기 2년 결산과 과제

■김 충 식 해남군수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안정적 판로 확보

해피콜·현장 민원실 운영

군민 제안 900여건 받아들여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해남군의 민선 4기 전반기 2년은 불안과 안정으로 정리된다.

해남군은 민선 4기 시작과 동시에 박희현 당시 군수가 인사청탁과 관련,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면서 1년 6개월여의 행정 공백이 이어졌다.

이후 해남군정은 사실상 '올 스톱' 됐고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서 해남군 기획예산실장 출신인 김충식 현 군수가 당선되면서 빠른 기간내에 안정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취임 직후 '안정속 변화와 군민의 행복'을 군정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잦은 선거로 분열된 민심 봉합과 불안한 군정의 안정을 이끌기 위한 조치였다.

우선 침체돼 있던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상승을 독려하고 나섰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모집운동을 전개해 900여 건의 알찬 제안을 받아들였고,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목표로 민원인 만족 해피콜 제도와 현장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읍·면 순회와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등과 함께하는 30여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이같은 각종 여론 수렴을 통해 사업비 960억원을 투입, 고품질의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망을 확보하는 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미 국내 최대의 김치절임 배추 가공공장이 공사에 착수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설립 계획도 확정한 상태다.

김 군수는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동안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해남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지원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제2농공단지조성 ▲화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배후연관복합 산업단지 조성 ▲명량대첩 승전지 관광명소화 등 6개 분야 11대 중점과제와 7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또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요 군정 과제로 선택했다.

김 군수는 "해남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고 전국 제일의 행복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민선 4기 하반기에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군민 모두가 잘사는 해남군을 건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무공해 웰빙 식품 우리밀 사 드세요"

광산 '우리밀 찰밀쌀' 판매

우리밀을 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구가 한국우리밀농협과 함께 '우리밀 찰밀쌀'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밀 찰밀쌀'은 한국우리밀농협이 수매·가공했으며, 포장지에 광산구 로고가 새겨져 있다.

1kg들이 포장으로 판매되는 '우리밀 찰밀쌀'은 현재 농협매장과 현대백화점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구입이 가능하다.

광산구는 '우리밀 찰밀쌀'의 소비 촉진을 위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화 주문도 받고 있다.

광산구 농업지원팀(940-8373)을 통해 1kg 2개를 주문하면 5천원(시중가 5천400원)에 판매한다.

또 한국우리밀농협(062-971-3425)에 20kg를 주문하면 무료 택배 배달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우리밀농협 관계자는 "강원대 한국영양과학연구소 최면 교수팀의 실험 결과 우리밀이 수입밀보다 인체 면역 기능이 2배나 높고, 항산화작용을 통한 항노화 효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쑥쑥 잘 크거라…꼬막 종패 살포

강진만 해상에서 꼬막 종패를 바다에 뿌리는 어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강진만 꼬막은 옛부터 궁중에 진상할 정도로 맛이 뛰어나 '참 꼬막'으로 불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영광에 국내 첫 사료용 쌀보리 생산공장

바우연구소와 협약…재배 면적 4천500ha까지 확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보리를 시범 재배한 영광군에 국내 첫 사료용 쌀보리 생산 공장이 세워진다.

영광군은 사료용 보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용 생산단지를 만들고 단보리(발아 생체보리)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쌀보리의 눈만 틔우고 뿌리는 나지 않게 하는 생체보리 생산 기술 특허를 보유한 바우연구소(소장 정덕한)와 기술이전 협약을 맺었다.

이 기술은 보리 껍질을 스스로 분해시켜 사료용 수입 옥수수보다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가축의 소화율을 70%에서 90% 이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보리를 비롯한 겨울작물 재배 면적을 올해 3천100ha에서 2012년 4천500ha까지 확대하고 보리 사료화 특허권을 행사해 영광을 '보리의 고을'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보리를 먹여 키운 돼지고기의 브랜드화를 위해 '보리 돼지 브랜드 사업단'을 만드는 한편 단국대와 함께 단보리 양돈 연구를 벌이기로 했다.

정기호 군수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축산업이 위기에 놓인 가운데 보리 재배 농가와 축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사료용 보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완도경찰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 보고회'

완도경찰이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활동 보고회를 가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완도경찰서(서장 정광록)는 최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협력단체와 자율방범대, 마을 이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활동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완도경찰은 이날 보고회에서 올 상반기 강도·절도 등 5대 범죄 검거실적 등 주요 업무성과를 결산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치안활동에 대한 설명에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광록 서장은 "범죄와 사고로 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을 섬기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경찰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강진 청자 4점 道 문화재 지정

강진 청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자상감연국모란문과형주자' 〈사진〉 등 청자 4점이 전남도 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다.

도 지정 유형문화재는 과형주자(제 292호)를 비롯해 청자상감유로수금문병(제 293호), 청자상감 '王'명잔탁(제 294호) 등 3점이다. 또 청자상감운학국화문개합은 도 문화재 자료(제 268호)로 지정됐다.

이들 청자는 2006년과 지난해 청자박물관 측이 구입했으며 고려시대 최고의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 청자박물관은 이들 청자 작품을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신청할 계획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